

韓美 ‘2+2’ 관세 협상…대미 흑자 발목 잡나

1분기 대미 흑자 133억8천만 달러

24일 재무·통상 수장 회담…수입 확대 방안 골몰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역대치인 지난해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수지 적자 줄이기에 집중하는 만큼, 이를 후 있을 한미 간 ‘2+2 통상 협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33억8000만 달러다.

지난해 1분기 기록했던 132억

2000만 달러보다 1.2% 증가했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걸 감안하면 전년 추이를 밟아가는 모양새다.

미국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무역수지 흑자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오는 24일 오전 8시(현지 시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스톡홀름에서 미국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진행한다.

미국 측 요청으로 ‘2+2 통상 협의’가 추진되며 한미 재무·통상 수장들이 함께 마주 앉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무역 균형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조선 협력 등 3가지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미국 정부가 주요 의제를 한꺼번에 의제로 올려 ‘패키지 딜’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로 무역 균형 의제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산업부도 미국과의 무역수지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수출 규모를 줄이기 보다는 수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무역수지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1분기 대미 흑자는 관세 조치 이전에 최대한 수출을 ‘밀어내기’ 한 결과물이지 않을까 싶다”며 “수출을 줄여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수입 등을 통해서 무역수지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인하폭은 축소

5월부터 ㄹ 당 휘발유 40원·경유 46원 ↑

인하율 휘발유 10%·경유 및 LPG 부탄 15%로 환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을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로 축소해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에 있지만 고환율과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인하율은 휘발유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LPG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소폭 낮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는 인하 전 탄력세율보다 휘발유(820원)는 ㄹ당 82원 낮은 738원, 경유(581원)는 87원 낮은 494원, LPG부탄(203원)은 30원 낮은 173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5번째 연장으로, 기재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당시부터 5년째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인하율 20%에서 시작해 2022년 5월 30%, 같은해 7월 국제유가 급등으로 37%까지 오른 바 있다.

이후 2023년 1월부터 부분적으로 인하율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까지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를 유지하다 7월~10월에는 휘발유 20%, 경유·LPG부탄 30%로 인하율을 소폭 낮췄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 번 더 인하율을 축소해 휘발유 15%, 경유·LPG부탄 23%를 적용했다.

이번 결정은 유류세 인하 시행 후 4번째로 인하율을 환원한 조치다.

기재부는 오는 23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남농기원, 나물 활용

‘간편 잡채’ 2종 개발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지역에서 생산된 나물을 활용해 ‘간편 잡채’ 제품을 개발하고, 도내 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취향잡채’ 2종(취, 곤드레)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집밥 문화의 확산과 여행 인구 증가로 조리 과정이 간편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가정간편식(HMR)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기원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별다른 조리과정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나물 잡채를 개발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시장 공략에 나섰다.

조리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명절 등 특별한 날에만 즐겨 먹는 음식으로 인식돼온 나물의 고정관념을 깬 먹거리다. 식재료도 전통적인 시금치 대신 취나물과 곤드레를 활용하고, 컵라면처럼 뜨거운 물에 불린 뒤 동봉된 양념으로 비벼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간편 구성됐다.

농기원은 장기간 상온 유통이 어려운 나물의 특성을 고려, 적절한 전처리와 건조 과정을 통해 건나물을 빠르고 쉽게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보다 30% 빠르게 조리할 수 있다.

광주식약청, 제주지역 축산물 수출 민원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광주식약청)은 23일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축산물 수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주특별자치도청과 함께 개최하며 제주지역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출 관련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국내 축산물의 해외 수출 절차 ▲주요 국가별 위생요건 ▲수출 신청서류 작성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 예정이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 돼지고기 수출을 위해 진행 중인 쇠고기 우·돈육 수출작업장 등록과 관련해 싱가포르 위생기준, 수출 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한다.



35년만에 일본으로 수출된 한국쌀 완판

일본 쌀 가격이 폭등하면서 35년만에 한국쌀을 수입하는 가운데 22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쌀이 진열돼 있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 18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에 따르면 일본 전국 쌀값의 평균은 5kg이 4214엔(약 4만 2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2.1%나 올랐다. 1971년 1월 이후 5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일본의 농협 온라인 쇼핑몰과 도쿄 신오쿠보의 한국수퍼마켓에서 팔린 이 쌀들은 해남군 옥전농협에서 생산한 땅골햇쌀 브랜드로 모두 완판됐다.

/뉴시스

BS그룹 개발 ‘솔라시도’ AI데이터센터 최적지로 부상

대규모 재생에너지·넓은 부지 등 첨단산업 최적지

BS그룹이 전남도 등과 함께 국토 서남단 해남에 개발 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안정적 재생에너지와 드넓은 부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정주여건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BS그룹 등에 따르면 솔라시도는 국내 최대 수준의 일사량과 풍속 등 기후조건을 기반으로 한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함께 넓은 부지와 산업용수까지 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에 필요한 핵심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BS그룹은 앞서 TKG, 삼성물산, LG CNS 등 국내의 전문 기업들과 함께 솔라시도 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협약(MOU)을 맺은 데 이어 최근엔 전남도가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AI데이터센터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솔라시도는 BS그룹 계열사인 BS

한양과 BS산업이 지자체인 전남도와 해남군과 함께 해남 일대 2090만㎡(632만평) 부지에 추진 중인 대규모 민관 협력 도시개발사업이다.

반경 15km 이내 다양한 기업이 총 4GW의 육상·수상 태양광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근 영산강 간척지를 태양광 집적화 단지(3GW)로 추진하고 서남해안권 해상풍력(7GW)자원을 활용, 총 10GW 규모의 발전 단지를 조성할 수 있어, AI데이터센터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으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솔라시도 토지는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 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고 조성 공사도 상당 수준 진행됐다. 지난해 6월에는 데이터센터 조성 부지가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며, 다양한 세제 혜택도 가능해졌다.

기업도시 특례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소득·법인세, 취득·재산

세 감면 혜택이 있고, RE100,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탈탄소 대응이 필요한 기업들의 관심도 높다.

지난해 10월엔 전남도, 한전과 154kV급 변전소 등 전력인프라 조기 구축 협약을 체결, 지자체 지원 아래 관련 산업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고, 올 상반기 중 예정된 전남도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국내 최초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에너지자립형 도시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유입에 대비해 병원과 국제학교 유치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2월 BS그룹과 미국 명문 사립학교인 RCS와 협약을 맺고, 국제학교 유치에 성공했고, 특급호텔 건립을 위해 호텔신라와 위탁 협약도 체결했다. 종합병원 유치와 체류형 웰스케이 단지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권형만 기자

광주시, 서울 월드IT쇼 홍보관 운영

광주경제자유구역청, AI·미래차 투자 유치



광주가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이 서울에서 열리는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에 선보인다.

광주시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24~26일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월드IT쇼’에 참가해 ‘투자유치 홍보관’을 공동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2025 월드IT쇼’는 국내·외 ICT 업계의 최신 트렌드와 혁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로 국내·외 500여개 기업이 참가하고 10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와 광주경제청은 ‘투자유치 홍보관’을 설치해 인공지능·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알리고, 국내·외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광주에서 가동되고 있는 국가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광주AI융복합지구와 빛그린국가산단,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유치 성과와 융복합 사례 등을 소개한다.또 자율주행, 친환경 모빌리티, ICT 융복합 산업 전반에 걸쳐 광주시가 제공하고 있는 세제 혜택과 행정 지원, 인재 양성 체계 등을 홍보한다.

홍보관에서는 광주시도시공사와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가 광주 핵심 산업단지인 AI융복합지구 분양과 입주 상담도 진행한다. 광주에 본사를 둔 ‘젠다이프’와 ‘보다’는 인공지능 서비스, 드론 기술 관련 플랫폼을 직접 전시하고 기술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도기 기자

목포서 ‘전남일자리박람회’ 개최

오는 30일…조선업·식품제조업·관광숙박 등 148명 채용

전남도는 오는 30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2025 상반기 전남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조선업·식품제조업·관광숙박 등 다양한 분야 28개 기업에서 148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취업 대상자는 일반 구직자, 대학생(졸업예정자), 특성화고 학생 등이며,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청, 보건청 등 중앙행정기관이 박람회를 지원한다.

실제로 영암의 (유)송운산업, (유)효양 등 조선업 분야 7개 기업이 용접, 포설, 취부 등 직종에서 47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식품 제조기업인 (주)동원F&B, 삼진물산㈜, ㈜대창식품, 농업회사법인 다슬 등은 생산직과 사무원 등 60명을 모집한다.

에이치제이디오션리조트㈜와 (주)자은오션랜드는 프린트 직원과 조

리사 등 관광서비스 분야 11명을 선발하고, 화학물질 제조업체 ㈜로우카본도 생산직, 연구원 등 10명을 채용한다. 케이씨씨는 전기 공무직, 생산 운전원 3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구직자는 30일 박람회장에서 이력서를 지참해 바로 면접을 볼 수 있으며 행사 일정 등 자세한 정보는 전남일자리종합센터 서부플랫폼(061-287-1142)과 전남일자리정보망(https://job.jeon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람회장에선 또 한전KDN, HD현대삼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구직자를 위한 취업 전략’이란 주제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이력서 사전 활용, 월령 상담 테라피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조준희 기자

기아, 상품성 높은 ‘더 2025 봉고 III EV’ 출시

급속 충전 시간 15분 줄여…주행 거리 6km 증가도 강점



기아가 상품성을 높인 소형 전기트럭 ‘더(The) 2025 봉고 III EV’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2025 봉고 III EV는 기존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급속 충전 시간 단축 ▲1회 충전 주행 거리 향상 ▲배터리 지상고 개선 ▲충전구 조명 적용 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